

# 목포대양산단, 김 산업 메카로 도약

목포대양산단이 김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머른김 가공업체 9개소와 조미김 업체 6개소가 대양산단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외국 업체도 투자해 일본기업인 아사쿠라 노리텐(주)가 지난 8월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목포를 방문해 박홍률 목포시장 등과 면담하고 향후 투자 방안을 협의했다.

김 가공 업체와의 잇따른 계약은 40%에 육박한 대양산단 분양률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목포권 산업 구조를 조선업 위주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으로 혁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 15개 머른김·조미김 가공업체 계약 체결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혁신 '고무적'

더욱 고무적이다.

우리나라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어 대양산단의 김 산업은 미래가 더욱 밝다.

우리나라 조미김은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지역규격으로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국제 교역시 공인 기준으로 적용돼

우리나라 김 제품은 앞으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제품 규격화는 세계 최초로 해조류에 대한 국제규격으로 우리나라 김의 국제적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은 수출액도 늘어나 지난 2010년 1억달러에서 2016년 3억천만달러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는 5억달러에 육박하는 등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목포 김을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를 대표하는 썬키스트 뉴질랜드 키위를 대표하는 제스프리 등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처럼 고부가 가치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 김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연구기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통해 김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겠다. 앞으로 대양산단에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목포의 김 산업은 시너지 효과를 받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 "수능 스트레스 풀고, 꿈을 향한 도전" 영암군 고3 수험생 특별프로그램 호평

영암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에게 진정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설계해보고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연속 운영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달 29일부터 이틀간 일정의 서울로 7017 문화체험 힐링캠프를 통해서 수능에서 오는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스포츠 놀이문화 체험과 대화로 연극관람 등으로 힐링시간을 가졌으며 지난 5일부터 이틀간은 예비 사회인으로 소양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접스킬과 보이스 트레이닝 등 자기계발을 위한 자신감UP 캠프를 운영하여 예비 사회인으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힐링캠프에 참가한 영암여고 김지연 학생은 "서울로 7017에서 50여년 동안 상상할 수 없을 정

도로 발전된 서울의 모습이 놀라웠고, 스포츠존스터에서 6.5M 높이 로프코스 장애물을 통과할 때는 온몸에 스릴과 짜릿함이 전해져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한, 삼하고 강민서 학생은 "자신감UP 캠프에서 꿈리스트를 작성하고 발표해 보면서 꿈을 향해 도전을 시작하는 시간이 지금이 순간부터 소중한 시간을 알게 되어 좋았고, 긴장되고 지쳤던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후 한층 밝아진 표정에 보람을 느끼며, 예비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되기 전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익하고 즐거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 곡성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무 무료상담 22일 옥과면행정복지센터서

곡성군은 오는 22일 옥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현지 출장상담'을 운영해 영세사업자,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옥과면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이번 상담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한해 동안 국제 및 지방세에 대해 고민해 왔던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내년에는 곡성권역, 석곡권역, 옥과권역으로 나누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농어촌 주민 등 세금과 관련하여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드리는 제도이며, 2016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곡성담당 마을세무사는 지역출신 유권규 세무사(☎062-269-6114)로 현재 호남세무법인 두암지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홈페이지 : www.i-honam.com  
지역구감·미래상조·전문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담양군, 2018년 벼 주력품종 신동진·새일미 선정

### 올해와 동일...고품질 증자확보·재배면적 확대



친환경농업의 메카 담양군이 고 품질 대수확은 쌀의 브랜드화를 위해 밥맛이 우수하고 소비자 선

호도가 높은 '신동진'과 '새일미'를 내년 주력품종으로 선정했다. 군은 최근 읍면 대표농가와 농

민단체, 유관기관 농협관계자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주력품종 선정 협의회 개최를 통해 읍면 대표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품종별 주요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최종 결정했다.

'신동진'과 '새일미'는 생산량이 비교적 많고 품질이 좋아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2017년에도 벼 주력품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새일미는 '2016 대한민국 명품 쌀' 대상에 선정된 품종이다.

강경원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은 "2018년 벼 주력 품종으로 선정된 '신동진'과 '새일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농가에 대한 영농지도를 강화해 고품질 대수확은 쌀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영명 기자

## 곡성군새마을회, 다문화가정 친정집 생활용품 보내기



새마을운동곡성군협의회(회장 김신환) 회원 40여명은 매년 곡성으로

시집온 다문화여성 친정집에 생활용품 보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올해는 회원들 각 가정에서 가져와 모은 100만원 상당의 비누, 치약, 칫솔, 수건, 양말, 세제, 식료품 등 생활품을 곡성을 읍내리 노연아(필리핀)와 2명의 친정집에 국제운송편으로 보내 따뜻함을 전했다.

사업은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생활품을 보급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잘사는 지구촌 건설에 앞장서고자 곡성군새마을회에서는 매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5년째 18명의 가정에 전달하였다.

곡성=김광휘 기자

## 영암군,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영암군이 환경부에서 실시한 2017년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중서와 함께 포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수장 시설관리와 수질관리 등 3개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시·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지 확인평가와 지자체의 개선 노력과 정책수행도 등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했다.

평가 결과 영암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로 개선실적이 탁월하고, 수도인력 전문성 확보 및 주

민서비스 활동 항목에서 A등급을 받는 등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개선과 상수원수에서 정수에 이르는 철저한 수질검사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영암군 수도사업소에서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지원 모두가 민선 6기를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환경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정수장 운영을 통해 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중앙 010-3365-6200	송하 010-8620-1925	임동 010-2656-4543	
학운 010-4166-1810	양산 010-2646-3205	오치 010-7532-3313	
광천 010-6612-8599	북구 010-4601-2080	동운 018-611-7751	
금호 010-6636-2775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상무 010-5359-7406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풍암 010-6634-5084			
화정 010-8438-3819			
영광 010-3611-308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